

<2020년 7월 6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행하신다.
2. 못 느끼면, 보람이 없다.
3. 은혜의 주관권에 있을 때는 귀한 것을 못 느낀다. 그 주관권을 벗어나면 느낀다.
4. 물도 마실 때는 귀한 것을 못 느끼고, 없으면 그때 귀한 것을 느낀다.
5. 있을 때는 귀한 것을 못 느낀다. 없을 때 아쉬운 것도 귀한 것도 느끼고, 깨닫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6. 있을 때 느끼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7. 있을 때 좋아하는 신앙이 ‘깊은 신앙’이다.
8. 사명자가 자기 사명에 해당되는 일을 안 하고 딴짓을 하면, 괴롭게 하여 그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신다.
9. 무더운 여름철 굴 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시원함을 느끼지만, 오래 있으면 굴 안이 밖보다 시원한 것을 못 느낀다. 그러다 굴에서 나오면 그제야 굴 안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깨닫게 된다.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도 그러하다.

10. 건강할 때는 건강하게 해 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러다 아프면, 그제야 건강함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된다.
11. 월명동을 사용할 때도 처음에는 좋은 것을 잘 느끼다가, 점점 못 느끼게 된다.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귀하고, 유익하고, 좋은지 깨닫는다. 귀하게 여긴 선생만 늘 사용하고 있다.
12. 돈도 쓸 때는 좋은 것을 모른다. 돈이 떨어져야 안다.
13. 아무리 좋은 집도 쓸 때는 좋은 것을 모른다. 없어 봐야 안다.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14. 가지고 있어도 안 쓰면, 귀한 것을 못 느낀다.
15.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다.
16. 사람은 자기 취향대로 좋아한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취향대로 좋아해라.
17. 어떤 자는 장단점 중에서 단점을 좋아하고, 어떤 자는 장점을 좋아한다. 단점을 좋아하는 이유는 현재에는 단점이지만, 개발해 놓으면 장점이 되기 때문이다.
18. 지혜자는 길의 앞날까지 생각하고 택한다.

19. 배워야, 분별한다.